

〈발 표〉

대학에서의 가정과 교사 교육

성 화 경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서 언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학은 1세기의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초기에는 여성교육, 생활계몽 또는 생활개선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뜻있는 분들의 가정에서 가정학을 공부하게 하였다. 그래서 많은 가정학자들이 여성지도자가 되었고, 교육자가 되어서 여성교육은 물론 여성 사회 참여의 길을 터 놓았으며 여성 지위향상에도 공헌하였으므로 가정학은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50~60년대만 해도 가정학과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컸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몇몇 여자대학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두 세 학과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느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빌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어머니는 공부를 잘 했다면서 왜 가정학과에 다녔느냐, 공부를 잘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해서 난처했다고 할 만큼 변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의 변화가 주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정학 전공자들이 사회변화에 대처 하려 노력했는지 여부를 반성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가정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 보고, 다음은 가정과 교사 교육에 대하여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가정학내에서 가정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1. 가정과목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도록 한다.

중등교육에서 가정과목은 생활교육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과목이다. 특히 근래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며, 가사노동이 기계화, 단순화 되고 있는데다가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매여 있는 현상이어서 가족관계나 일상 생활로부터 얻던 경험은 축소되어 생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경험을 통하여 받아 들이던 어른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지식이나 기능도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남학생에게도 가정과목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가정과목의 시간 수는 축소 조정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 말하기를 학생들은 가정과목에 흥미가 없고,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교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가정과목 존폐론까지 대두된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입시 경우를 봐도 지원율이 저조하고 지원자의 성적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또 대학 재학생 중에는 신부 수업을 하는 학과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이야기의 근거는 과거 가사과 시대에 대한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며 현재의 교육내용이나 수준으로 보면 인식부족의 탓이라고 치지도 못하면서도 그 실상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통해서 가정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과목 교육에 어느 정

도 만족하는지를 알아 보고 불만인 경우는 그 이유를 물어 근거를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 보려 한다.

(1) 내용에 대한 인식

중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가정과목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해서 지난 6월, 서울과 지방의 여자 중·고등학교 8개교에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학생 1,401명, 학부모 1,113명, 교사 48명이었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조사에 응한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배경은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39.2%가 ③번에, 27.1%가 ①번에 답을 해서 66.3%가 가정과목의 교육 목표에 부합되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②번에 답한 학생도 17.2%나 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46.8%가 ①번에, 29.9%가 ③번에 답을 해서 76.3%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나 ②번에 답한 경우도 13.0%가 되고 있다.

②번은 단순한 가사작업을 익히거나 혼히 신부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우려한 것처럼 많은 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그런 인식을 분리시킬 만큼 바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⑤번에 답한 학부모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대부분 대졸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수입도 100~150만원으로 다른 집단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⑥번에 답한 학부모는 반대로 수입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100만원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활 정도나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은 교과내용의 조절이나 수업방법의 선택에서 교사들의 융통성으로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조사에 응답한 학부모의 배경

	30~39 세	40~49 세	50~59 세	
나이	부	5.3%	71.6%	19.4%
	모	25.7%	64.8%	7.4%

	국 졸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학력	부	9.3%	13.9%	41.8%	32.9%
	모	16.2%	24.3%	41.2%	16.5%

	50만원 이하	5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 이상
수입	23.1%	44.3%	19%	6.0%

* 직업의 종류: 회사원, 상업, 개인기업, 농업, 자유업, 공무원, 교육자, 기타

<표 1> 가정과목 내용에 대한 인식

단위명, ()는 %

	학 生	학부모	교 사
1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380 (27.1)	520 (46.8)	15 (31.2)
2 요리나 바느질 같은 생활 기능을 익힌다.	241 (17.2)	145 (13.0)	1 (2.1)
3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배운다.	549 (39.2)	328 (29.5)	27 (56.3)
4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81 (5.8)	54 (4.9)	0
5 현대 생활에 비하여 뒤떨어진 지식, 기능이 많다.	104 (7.4)	47 (4.2)	5 (10.4)
6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을 배운다.	46 (3.3)	19 (1.7)	0
계	1,401 (100.0)	1,113 (100.0)	48 (100.0)

(표 3) 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배경

나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나이	40.8%	36.7%	14.3%	6.1%
출신교별 학과				
				%
				46.9
				12.2
				12.2
				6.1
				14.3
				6.1
근무연한				
5년 이하		5-10년	10-15년	15-20년
근무연한		24.5%	18.4%	10.2%
		20년 이상		
		8.2%		

(2)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가정과목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교육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생의 경우 56.0%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28.1%가 만족한다고 하여, 84.1%의 학생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는 60.4%가 보통이라고 하고 31.9%가 만족한다고 해서 92.3%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4) 가정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생 (%)	학부모 (%)
아주 만족하다.	2.9	2.5
만족한다.	28.1	31.9
보통이다.	56.0	60.4
불만이다.	10.6	4.2
아주 불만이다.	2.3	0.9
계	100.0	100.0

(표 5) 불만인 경우

	학생 (%)	학부모 (%)
실생활과 거리가 먼 지식·기능이다.	33.3	38.1
사회 발전에 비해 뒤떨어진 내용이다.	26.3	26.6
중복해서 배운다.	16.4	11.1
실습 때문에 시간을 빼앗긴다.	7.0	11.1

그러나 소수이지만 불만이라고 답한 사람에게 이유를 알아 보니, **(표 5)**와 같이 교과 내용이 실생활과 거리가 먼 지식과 기능이라는 지적이었고, 사회 발전에 비해 뒤떨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습때문에 시간을 빼앗긴다고 답한 경우는 학생·학부모 모두 10% 정도여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2. 가정교육과는 교사 교육에 진력하도록 한다.

교육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환경 등이 모두 중요한 요인 있지만 어떤 요소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사 교육은 가정과목 교육의 근본이 되며 중요한 위치인 것은 자명하다. 이런 소임을 맡고 있는 대학의 가정교육과의 교사 교육을 위한 체제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과정과 교수 구성을 통하여 점검해 보려 한다.

(1)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

교사는 적성과 자질을 갖추여야 하지만, 전공 학문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은 최우선의 조건이다. 이것은 주로 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되므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사 교육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은

- 중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므로 중등학교

(표 6) 가정·가사 교육과정 분류

- * 가족관계
- * 가정 관리
- * 가정경제와 소비생활
- * 영양학
- * 식품학
- * 조리원리 및 조리실습
- * 의복재료 및 관리
- * 의복디자인 및 구성실습
- * 복식사
- * 주생활
- * 아동학 및 부모교육 (성교육)
- * 수공예 (자수, 편물)
- * 직업과 진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 가정과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직업의식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하며
- 비사계 가정학과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야 가정 교육과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려 한다. 비교하기 위해서 중·교등학교의 가정, 가사 교육과정을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표 6〉과 같이 묶고, 수집한 (18개 학교)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도 과목명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분야별, 필수와 선택과목별로 구분하여 〈표 7〉,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가정교육과 교과과정 중 전공 필수과목

과 목 명	개설학교수	과 목 명	개설학교수
의상학	3	육아론	2
피복관리학	1	아동학	11
피복재료학	16	인간발달	1
복식의장학	6	노인복지	1
복식사	2	가정관리학	32
의복구성학	13	가족관계학	13
유기화학	2	소비자교육론	4
생물학	1	주거학	12
식품학	11	가정학원론	8
조리학	8	통계학	3
영양학	20	가정과교과교육	9
식이요법	1	수공예	1

〈표 8〉 가정교육과 교과과정 중 전공 선택과목

과 목 별	개설학과수	과 목 별	개설학과수
피복위생학	2	영양학실험	2
피복관리학	7	식이요법	13
피복재료학	8	생물학	1
복식의장학	7	물리학	1
복식사	17	생리학	5
의복구성학	6	생화학	3
의복구성실습	24	유기화학	5
복식사회실리학	5	보건학	3
의류정리 및 실험	4	가정관리실습	25
복식미학	1	소비자교육론	16
염색 및 색채실험	17	가족관계학	24
수공예실습	10	가정관리학	3
면물	2	인간발달	2
봉제과학	1	아동학	11
식품학	17	육아론	3
식품학실습	3	주거학	10
조리학	11	원예학	3
조리학실습	23	가정학원론	3
영양학	17	가정과교과교육	9

검토한 결과를 보면

①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

조리실습 대신 실현조리나 조리원리만 들어 있는 학교가 5개교 있었다. 그리고 수공예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6개교 뿐이었다. 그런 반면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분야를 조사해 보니 이론보다 조리실습과 수공예 실습에 월등히 많은 학생들이 흥미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것은 실습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실습 담당 능력도 신장시키기 위해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교사들은 가정과목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시간이 부족하며 수준이 학생과 맞지 않아 만족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교육과도 제한된 여건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② 가정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을 기르는 과목은 가정학원론과 교과교육이라고 생각된다. 가정학원론은 가정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바른 시각을 형성하게 하며 가정과 교육론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법정 필수 과목이기도 하지만 가정과 교사의 태도를 갖추게 하는 과목으로 중요한데도 취급하지 않은 학교가 있었다.

물론 가정교육과 출신이 모두 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교사 교육의 혼점이 생기고, 교사의 질이 낮아 진다는 평과 함께 가정과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된다.

③ 가정대학 수준으로 생각되는 깊이 있는 과목 명도 상당수 있었다. 미국의 교육과정을 보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과 사회교육 담당자 자격증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이 실시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문화교실이나 주부대학 또는 주부 취업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분야별로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2) 가정교육과의 교수에 대하여

중등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못지 않게 대학에서도 교수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교수는 그 학과의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강의의 성격, 범위,

수준도 정하며 학생지도와 함께 학과를 운영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된다.

교수의 수는 학생수와 전공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가정교육과 교수의 수는 4.2명 이었다. 교육과정의 방대한 전공 분야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이고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기 어려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소한 6~7명은 학보해야 하며 교과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를 포함해야 한다.

교수의 전공 분야는 의류와 식품·영양이 많고, 아동학·주거학·가정관리 분야가 약간 명 있으며 가정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는 거의 없었다. 이런 현상은 가정교육 분야의 연구 업적이나 저서가 나오지 않고 발전이 부진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가정교육은 가정학에서 하나의 분야로 발전 시켜야 한다.

70년대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가정학이 영역별로 세분화되고 학문으로서 체계가 잡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가정교육과로 남아 있는 학교는 낙오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기준을 가정대학에 맞추려 애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교육과정이나 연구 업적의 부진도 그런 점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 분야가 가정학회를 비롯해서 가정학 전공자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학문은 연구에 그칠 수 없다. 그 결과를 생활에 적용하고 사회에 기여 할 수 있을 때 더 가치가 있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가정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된다. 앞으로 가정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대학원과는 별도로 일반대학원에 가정교육과를 두어 석·박사를 배출해야 하며 가정교육과에서는 가정교육 전공 교수를 전임 교수로 받아 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교육 분야의 연구 결과와 가정학내부에서의 관심은 정책 입안자나 행정 담당자에게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가정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가정교육과의 교사 교육의 현상을 파악하고 가정과 교육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중등교육에서 가정과목은 학생·학부모에게 과목의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인식되어 있다.
- (2)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 교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3) 가정과목 교육에 불만인 학부모의 경우 그 이유는 내용이 사회 발전에 비해 뒤져 있거나 실생활과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하였다.
- (4) 교사가 가정과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체계가 없으며, 시간이 부족하고 학생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 한다.

- (1)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연구하여 방대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핵심성 있게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 (2) 가정학내에서 하나의 분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정교육 전공 석·박사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 (3)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해서 교사 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교사의 자질을 높히도록 힘써야 한다.
- (4) 가정교육과는 교수의 수를 확충해야 하며 교과교육 담당 교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5) 사회교육 담당자 자격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중등교사 자격증과 함께 사회교육 담당자 자격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